

〈잊혀진 목소리〉

1. 장마 끝의 오후

장마가 물러간 도시는 축축했다. 아스팔트 틈새마다 남은 빗물이 햇빛에 증발하며 눅눅한 냄새를 풍겼다. 창문을 열자, 축축하게 데워진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서진은 잠시 창문을 닫을까 하다, 그냥 열어둔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회색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모서리는 군데군데 긁혀 있었고, 재생 버튼은 손때로 반들거렸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랍 속 깊이 묻혀 있던 물건이었지만, 오늘은 책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그 녹음기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2년 전, 조용히,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병원도, 유서도 없이 사라졌다. 장례식에서 몇몇 친척들이 '그 사람은 원래 좀 이상했지'라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서진은 그 말이 싫었지만, 동시에 그 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품을 정리하던 날, 이 녹음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는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남겼든, 그것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이유 없이 이 버튼을 눌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 첫 번째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직' 소리가 흘렀다. 이어 낮고 쉼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이걸 듣는다면, 아마 난 없겠지."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잊고 지내던 음성이, 먼지 낀 책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듯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색하게도, 동시에 너무 익숙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목소리 말이다.”

서진은 손가락이 멈춘 채 녹음기를 내려다봤다. 마음속 목소리? 허황된 얘기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어조는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건 축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다. 그 목소리들이 내 머릿속에 울릴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래서 난 사람을 피했다. 그리고... 너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말을 잇기 전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너도, 서진아... 네 마음속에서 나를 향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어린 너의 분노였지만, 내겐 칼날 같았다.”

3. 기억 속의 아버지

서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만 지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쓰는 척했지만,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늘 피곤했고, 서진은 그런 엄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 제발 나가서 뭐라도 해.’

그 시절의 생각들은 입 밖으로 꺼낸 적 없었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말했다. 아버지가 말한 ‘칼날 같은 목소리’란, 아마도 그 마음의 조각들이었을까.

기억 속 아버지는 대화를 잘 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맛있냐’라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질만 했다. 서진은 그 침묵이 무심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혹시 그 침묵이 마음속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방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아버지의 고백

녹음 속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그 목소리를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네 목소리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마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일 거다. 사랑하면... 그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 뒤로 한동안 잡음만 들렸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재생 버튼을 누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난 떠나기로 했다. 내가 없는 게, 네가 더 편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순간, 배터리가 방전된 듯 소리가 뚝 끊겼다.

5. 꿈속의 대화

그날 밤, 서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거대한 공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뿌연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물결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서진이 다가가자, 아버지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네 목소리가... 따뜻하구나.”

서진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꿈은 그 순간 흐릿하게 사라졌다.

6. 두 번째 재생

아침에 눈을 뜬 서진은 녹음기에 새 배터리를 넣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제 듣지 못한 부분이 흘러나왔다.

“...서진아, 만약 네가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를 미워해도 된다. 하지만 네 마음속 목소리는 네가 선택하는 거다. 부디 그 목소리를, 사랑으로 채워라.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다.”

서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 하늘은 장마 끝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맑았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이번엔 공기가 그다지 무겁지 않았다.

7. 에필로그

그날 이후 서진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울리던 오래된 분노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목소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책상 위 녹음기는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겨진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남겨진 마지막이자, 어쩌면 영원한 대화였다.